

낙농가 중심으로 변화하는 낙농산업에 적응해야 한다



손 정 렬
본회 감사



우유소비 확대와 원유가격 안정, 체세포수에 대한 가격의 결정, 낙농자조금 제도의 확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유제품의 개발, HACCP제도에 대한 낙농산업의 적응력 제고, 조사료 부족에 대한 농가의 고충,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낙농피해 등 많은 과제들이 새천년에 하나씩 해결되기를 바란다.



서론

새천년, 어떻게 새천년을 논하든지 새천년의 가장 큰 이미지는 변화의 대명사가 아닌가 한다. 새천년을 맞이하며 우리 주변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낙농가들도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낙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함은 무엇일까. 생산비를 줄이고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낙농의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수는 약 14,200농가, 사육두수는 약 540,000로 전년(15,175농가, 538,913두)과 비교하여 낙농가수는 약 10%정도 감소하였지만 두수는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사육규모별로 보면 50두 이상의 낙농가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반면 20두이하의 낙농가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50두 이상의 사육규모가 차지하는 사육두수의 비율은 약 43.4%로 전년(38.6%)보다 약 4.8% 증가하였다.

2. 전업농의 확대

위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점점 더 전문화 대규모화 되어가는 전업농의 정착 및 확대가 이

본론

1. 1999년말의 낙농현황

'99년말 현재 전국의 낙농가
<표 1> '99년의 낙농가수의 추이

구 분		98 1/4	2/4	3/4	4/4	99 1/4	2/4	3/4	4/4
전 국	낙농가수	17,136	16,594	16,136	15,671	15,175	15,109	14,855	14,200
	전 분 기 증 감 수	-283	-542	-458	-465	-496	-66	-254	-655
	전 분 기 증 감 율 (%)	-1.6	-3.2	-2.8	-2.9	-3.2	-0.4	-1.7	-4.4

* 농림부 축산통계, '99. 4/4분기는 추정치

<표 1> '99년의 낙농가수의 추이

구 분		98 1/4	2/4	3/4	4/4	99 1/4	2/4	3/4	4/4
전 국	낙농가수	568,131	562,447	552,191	538,913	533,341	534,786	534,668	540,000
	전 분 기 증 감 수	23,714	-5,684	-10,256	-13,278	-5,572	1,445	-118	5,332
	전 분 기 증 감 율 (%)	4.4	-1.0	-1.8	-2.4	-1.0	-0.3	0	1.0

* 농림부 축산통계, '99. 4/4분기는 추정치

〈표 3〉 2000년 전업농의 기준

구분	전업농	구분	전업농
착유형태	파이프라인, 착유실	우사형태	틀받운동장, 후리스틀
조사료포(평)	12,000	사육두수(두)	70
경산우두수(두)	40	일평균납유량(Kg)	850
두당산유량(Kg)	8,000	유지율(%)	3.7
세균수(만/ml)	1이하	체세포수(만/ml)	20이하
분만간격(개월)	13이하	두당연간소득(천원)	1,900

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2000년 전업농의 목장규모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지역과 낙농 형태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표 3〉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3. 낙농진흥회의 출범에 따른 집유일원화

원유의 가격안정과 시장개방에 따른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낙농진흥법의 개정으로 낙농진흥회가 출범하였다.

농림부에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하에 원유와 유제품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은 민간 기구인 낙농진흥회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각 부문별로 전문화가 요구되는 자유경쟁 체제에서 국가와 민간단체가 힘을 합하여만 세계 낙농국가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진통속에 있지만 낙농진흥회는 정부의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낙농산업관련업무를 실행 또는 집행하는 한국 낙농산업을 대표하는 민간기구로 축협중

양회와 낙농관련 단체(생산자, 유가공관련단체)로 구성되며 유제품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 낙농업과 낙농관련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농진흥회는 2001년까지 90%까지 집유일원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집유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수급예측모형을 개발해 원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의 사업구상을 밝히고 있다.

현재 일부에서 집유일원화를 시행하여 제주도의 과잉 원유를 수매하여 분유로 전환시키는 등의 제한적이지만 원유 수급조절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낙농진흥회의 역할은 커질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더욱 요구된다.

4. 낙농환경의 상대적 약화

사회 전반에 대한 환경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이로 인한 낙농업분야에도 법개정과 새로운 법의 신설로 낙농 및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분뇨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오분법”의 개정에 따른 벌금 부과 부담도 가중되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의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낙농 환경 강화에 대한 농가 스스로의 대응책이 미비하고 축산오폐수 처리 비용부담의 증가로 오폐수 처리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농가의 이탈과 낙농포기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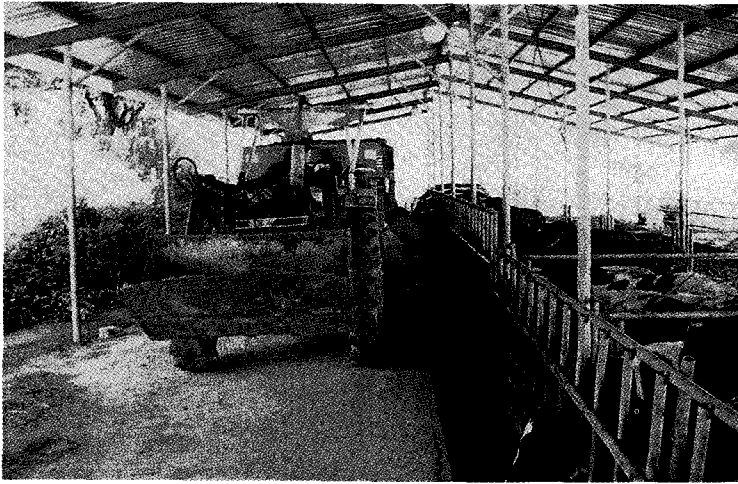
또한 “한강수계법”의 신설로 수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내에 있는 축산인들은 사실상 낙농 등 축산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낙농 환경의 약화는 낙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여기기 어렵고 자연도태라는 엄청난 무기앞에 점점 낙농의 살길이 좁아지는 현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낙농가 스스로가 적응할 수 있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5. 고소득을 위한 낙농전략

- 젖소 능력검정, TMR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정부의 규제와 급변하는 국제적 낙농 환경에 아무런 제약없이 적용하는 방법은 사육하는 개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개체의 능력을 파악하고 철저한



혈통의 기록과 정립으로 우수한 개체의 유전자원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젖소의 개량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나라의 검정성적은 아직도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직도 많은 발전의 여지를 갖고 있는 분야이다.

개량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 스스로가 철저한 기록관리와 유우균 능력검정을 통한 올바른 정액의 선정과 정확한 혈통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의 낙농산업은 개체의 능력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젖소 개량의 부분은 중요하다. 한 나라가 얼마만큼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국가경쟁력의 척도임은 당

연하다.

그러나 검정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감소와 농가의 인식부족은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또한 정확한 영양의 분석과 과학적인 사양관리의 기준인 TMR의 확대도 바람직하다. 사양관리의 비용절감과 고능력우를 사양할 수 있는 사양방법이야말로 우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만큼 중요하다.

6. 기타

위에 열거한 사항들 이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낙농산업은 많은 일거리를 갖고 있다.

우유소비 확대와 원유가격안정, 체세포수에 대한 가격의 결정, 낙농자조금 제도의 확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유제품의 개

발, HACCP제도에 대한 낙농산업의 적응력 제고, 조사료 부족에 대한 농가의 고충,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낙농피해 등등 많은 과제들이 새천년에 하나씩 해결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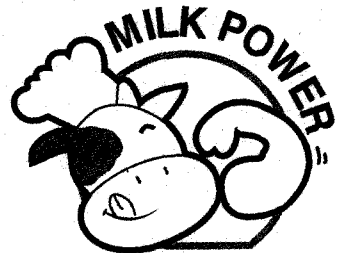
결론

나 자신도 낙농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내 자신앞의 문제도 간과하고 있는지 모른다.

결국 낙농은 정부나 소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를 기르고 있는 낙농가가 하는 것이다. 낙농산업발전의 주인이 낙농가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낙농산업의 주인인 낙농가 중심으로 정부 지원확대와 안정적인 발전대책을 강구하고 농가 스스로가 천직으로 여기고 변화하는 낙농산업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것만이 낙농산업을 영원히 발전시키는 길이라 하겠다. ☺

〈필자연락처 : 0356-585-3111〉



사단 한국낙농육우협회

♣ 자조금으로 뭉쳐 낙농산업 안정찾자 ♣